

Upādāna와 Karman의 의미를 통한* 상호 의존적 관계 고찰

— 『중론』 제8장 제12계와 제13계를 중심으로

정상교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 연구 교수
sunsbar@naver.com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요약문

상호 의존적 관계(相依性, *pratyaṃyātā*)는 『중론』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중관 사상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제8장 「행위와 행위자의 고찰」은 행위자(*kāraṇa*)와 행위(*karman*)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제법에 확장시켜 보여주고 있는데, 확장의 구체적인 예는 제13계의 ‘취(*upādāna*)의 작용’을 통해 제시된다. 따라서 ‘취의 작용-행위자-행위’ 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중론』이 주장하는 상의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하나의 유용하고 구체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karman*’이라는 단어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 대상(결과)’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계송만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확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제8장이 제시하는 상의성에 관한 고찰은 먼저 관련 주석서를 통해 ‘*karman*’의 의미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361-2007-1-AM0046)

를 확정짓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정이 중요한 이유는, 제8장에서 ‘행위자-행위’의 관계는 상술하였듯이 ‘취(upādāna)’로 확장되기 때문에 ‘karman’의 의미 고찰은, 그 자체로 또한 여러 의미를 갖는 ‘upādāna’의 의미 분석을 연동시키게 된다. 따라서, ‘karman’의 의미 고찰이 선행됨에 의해 ‘upādāna’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이러한 분석이 기반되어야만 제8장이 제시하는 상의성의 이론적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부족과, 소수의 관련 연구들은 ‘karman’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upādāna’의 의미 파악과 연계한 이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upādāna’와 ‘karman’의 의미 파악에 주목하며 『중론』 제8장의 해당 계승을 분석하여 상의성을 고찰하려 한다.

주제어

상의성, 행위, 행위 대상, 행위자, 취, 취하여지는 대상, 취자

I. 서론

나가르주나(Nāgārjuna, 2C경)는 『중론(中論)』 *Mūlamadhyamakārikā* 제8장 「행위와 행위자의 고찰」 *karmakāra-ṭīkā*에서 행위자(kāra)와 행위(karma)가 상호 의존해서(*pratītya*) 성립함을 논증하고, 그와 같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모든 존재에까지 적용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적 관계(*parasparāpekṣika*)는 『중론』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고 제8장만의 독창적인 사상은 아니다.

그런데, 제8장 제13계는, 제12계까지가 보여준 ‘행위자-행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기반하여 취(*upādāna*)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므로, 이러한 양 계승의 관계를 여러 주석서들과 분석해 보면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한 매우 상세한 이론 구조를 알 수 있다.

즉, 제8장은 구체적으로 ‘취’가 행위자-행위와 어떤 관계에서 성립하는가를

규명함에 의해 상호 의존적 관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양 계송을 통한 상호 의존적 관계의 이해는, 먼저 ‘행위자와 행위’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위’라고 번역된 ‘karman’은 주지하듯이 ‘행위 대상, 행위 결과’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론』 제8장 제12계와 제13계의 ‘karman’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제8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자-행위(혹은 행위 대상)’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한 이해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의 관련 부분에 관한 해석을 보면 ‘행위’와 ‘행위 대상’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먼저 상호 의존적 관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karman’의 의미를 관련 주석서를 바탕으로 명확히 하려한다. 이 문제는, 제13계의 취(upādāna)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취’라는 단어 역시 그 자체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karman’의 의미 고찰은 필연적으로 ‘upādāna’의 의미 파악을 연계하여 검토되어 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행위자와 행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는 『중론』 제8장 제12계 및 제13계와, 그에 관한 찬드라키르티(Candrakīrti, 7C경)의 주석서인 『프라산나파다』Prasannapāda를 고찰한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저서이며 『프라산나파다』보다 먼저 저술되어 행위자와 행위의 관계를 ‘upādāna-upādeya’의 관계속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입중론(주)』Madhyamakāvatāra(bhāṣya) 제6장 제137계와, 이에 관한 『입중론 복주』Madhyamakāvatāra-ṭīkā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또한, 『중론』의 해당 계송을 언급하고 있는 붓다팔리타(Buddhapālita, 6C경)의 『불호주(佛護注)』Buddhapālita-mūlamadhyamakavṛtti, 바비베카(Bhāviveka, 6C경)의 『반야등론

1) 국내 선행 연구 중, 남수영, 『중관 사상의 이해』(서울: 여래, 2015), pp. 141-142가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며 이들의 관계를 작용-행위-행위자 삼자의 ‘중층적 상호 의존적 연기 관계’(이하, 중층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의미를 갖는 ‘karman’의 의미를 관련 주석서들을 통해 이해할 때 그러한 이론 구조가 제8장의 해당 계송의 분석으로서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다소간의 의문이 생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국내 연구 중 거의 유일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남수영의 연구와 비교, 검토하며 필자의 논지를 전개한다.

(般若燈論)』*Prajñāpradīpa* 및 아발로키타브라타(*Avalokītvratā*, 7C경)의 『반야
등론복주(般若燈論復注)』*Prajñāpradīpa-ṭīkā*의 주석도 참고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존재의 상호 의존적 관계’는 『중론』 여러 장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매우 중
요한 개념이지만 본 논문은 특별히 『중론』 제8장 제12계와 제13계 및 이에 관
한 주석서들의 해설에 한정된 미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
려한다.

II. 본론

1. ‘karman’의 의미 고찰

『중론』 제8장 제13계는 취(*upādāna*)의 의미를 제12계의 행위자(*kāraka*)-행
위(대상)(*karman*)의 관계에 준용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계송만으로는 본
논문이 고찰하려고 하는 대상 중 하나인 ‘karman’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 힘들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두 계송을 소개한 뒤, 관련 주석서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취자(*upādātṛ*)-취(*upādāna*)-취하여지는 대상
(*upādeya*) 및 행위자 행위(대상) 파악해 보려한다.

먼저, 『중론』 제8장 제12계와 제13계는 다음과 같이 ‘행위자와 행위(대상)’
를 언급하고 있다.

‘행위(대상)(*karma*)’에 의존하고, 행위(대상)은 행위자에 의존하여 생겨
난다. 우리는 다른 성립에 관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 『중론』8-12

행위(대상)과 행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취(*upādāna*)를 이해하
여야한다. 행위(대상)과 행위자에 의해 모든 사물도 이해하여야 한다.²⁾

『중론』 8-13

2) *pratītya kāraṅgaḥ karma taṃ pratītya ca kāraṅgaḥ /*
karma pravartate nānyat paśyāmaḥ siddhikāraṅgaḥ // MMK. 8-12 (PSP p. 189.II. 4-5)
evaṃ vidyād upādānaṃ vyutsargād iti karmaṅgaḥ /
kartuḥ ca karmakartṛbhyāṃ śeṣān bhāvān vibhāvayet // MMK. 8-13 (PSP p. 189.II. 11-12, p. 190.I. 4)

즉, 행위자와 행위(대상) 개념은 상호 의존하는(*pratītya*) 관계로 존재한다. 그런데, 제12계에 대한 『프라산나파다』*Prasannapāda*의 주석 역시 그 이상의 설명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제12계 자체만으로는 ‘*karman*’을 ‘행위’로 볼것인지 ‘행위대상’으로 볼것인지는 확정짓기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그 정확한 의미는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주석서들의 의미를 통해 파악해야 할것이다³⁾.

다음으로 제13계는 이와 같은 행위자-행위의 관계를 통해 ‘*upādāna*’를 이해할 것을 주장하며 제8장을 끝맺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중론』 본 계송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위자-행위’를 준용한 ‘*upādāna*’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프라산나파다』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upādāna*는 취(*upātti*)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 ‘취하는 작용(*upāttikriyā*)’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취하는 작용)은 [그 취하는 작용] 자체를 성립시키는 그 행위자인 취자와, *karman*인 취(*upādāna=nye bar blang bar bya ba*)를 결합 시킨다.⁴⁾ 그리고, 취하여지는 대상(*upādeya=nye bar blang ba*)과 취자의 양자도 행위와 행위자와 같이, 서로 의존해서 성립하고, 자성(본질적)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⁵⁾ (밑줄 필자)

3) *ihākurvāṇasya karmanirapekṣasya kārakatvābhāvāt karmāpekṣya kārakasya kārakatvaṃ bhavati / kāraṇa cākriyamāṇasya kasyacit karmatvābhāvāt/ kriyamāṇasyaiva karmavyapadesāt / taṃ kāraṇaṃ praṭītya karma pravartate ity evaṃ karmakāraṇayoḥ parasparāpekṣikīṃ siddhiṃ muktā nānyat siddhikāraṇaṃ paśyāmaḥ // PSP p. 189. ll. 6-9.*

이 계송에 대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행위자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자성은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에 의해 현재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어떠한 것도 행위(*karmatva=las nyid*)로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아닌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행위이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 행위자에 의존하여 행위는 생겨난다. 이와 같이, 행위와 행위자가 상호 의존하여 성립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성립의 원인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 참고로, 桂 紹隆, 五島 清隆 『龍樹『根本中頌』を讀む』(東京: 春秋社, 2016) pp.349-350 각주 13)에 의하면, 『중론』 제8장의 ‘*karman*’은 ‘행위 대상’의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다른 장에서는 ‘행위’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계송만 가지고 이를 추론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 후술하겠지만 다른 현대어역들은 이에 대한 구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4) ‘결합시키다’로 번역한 *saṃnidhāpayati*는 ‘드러내다’(make present or manifest, represent)의 의미도 있지만, ‘드러내다’의 구체적 방법이 결합시킴이므로 여기에서는 ‘결합 시키다’로 번역함. *saṃnidhāpayati*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본 논문 ‘4. *upā-√dā* 개념을 통한 취와 행위의 의미 고찰’에서 상세히 논함.

『프라산나파다』는 먼저 ‘upādāna’의 의미를 ①‘취하는 작용’(upāttikriyā)으로 설명한 후, 그 특징으로서 ②‘취하는 작용’을 스스로 성립시키는 행위자인 취자와 ‘karma’인 취를 결합시킨다고 한다.

여기서 ①의 의미는 매우 명확하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karma’를 포함하고 있는 ②의 경우,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보면, “...svasādhanam kartāram upādātāram karma copādānam saṃnidhāpayati.” 이므로, 앞의 해석대로 “스스로 성립시키는(svasādhanam)=행위자(kartāram)=취자(upādātāram)”가 되고, “upādāna=karma”가 된다. 그런데 ‘karman’이라는 단어 자체가 행위와 행위의 대상(결과)이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지만, ‘행위’로 해석하면, “...행위자인 취자와 행위(karma)인 취(upādāna)를 결합시킨다”가 될 것이다. 즉, 취하는 작용(upāttikriyā)의 의미를 가진 ‘upādāna’는, 그러한 작용을 성립시키는 행위자(=취자)와 upādāna의 의미를 가진 ‘행위’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론』 제8장 제13계와 이에 관한 『프라산나파다』의 주석에서 ‘karman’을 ‘행위’라고 이해한다면, 작용, 행위, 행위자라는 삼자가 중층적 구조로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행위는 행위자에 의존해서 성립하고, 행위자는 행위에 의존해서 성립한다. 그리고, 다시 행위에 의존해서 작용이 성립하고, 작용에 의존해서 행위와 행위자가 성립한다⁶⁾. 그런데, ‘karman’이 『프라산나파다』의 관련 주석에서 ‘행위’로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검토할 점이 있다.

②의 “karma copādānam”에 대한 티베트 역은 “nye bar blang bar bya ba las”이므로, 이에 의하면 ‘upādāna’의 의미는 명확히 ‘취하여지는 대상’(nye bar blang

5) upāttir upādānam anena copāttikriyām āha / sā ca svasādhanam kartāram upādātāram karma copādānam saṃnidhāpayati / tayos copādeyaupādātōḥ parasparāpekṣayoḥ karmakāravadv eva siddhir na svābhāviki / PSP p. 189. ll. 13-15.(밑줄 필자)

nye bar len pas nye bar len pa ste de ltar na 'dis ni nye bar len pa'i bya ba bstan la // des kyang rang gi sgrub byed byed pa po de nye bar len pa po dang nye bar blang bar bya ba las 'dzin par byed cing / nye bar blang pa dang nye bar len pa po de gnyis kyang las dang byed pa po ltar phan tshun btos pas grub pa yin gyi ngo bo nyid kyis ni ma yin no // P. 5250, 73b7-8.(밑줄 필자)

6) 남수영, 앞의 책, pp. 141-142.

bar bya ba=upādeya)이 되고, 그것이 곧 ‘karman’(las)이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karma’는 ‘upādeya’이므로 ‘행위’가 아니라 ‘취하여지는 대상’인 ‘행위의 대상’이 된다.

내용적으로 보아도 각주5)에서 언급한 “취하는 작용(upāttikriyā)의 의미를 가진 ㉠‘upādāna’는, 그러한 작용을 성립시키는 행위자(=취자)와 ㉡‘upādāna’의 의미를 가진 ‘행위’를 결합 시킨다”에서, ㉠‘upādāna’는 ‘취하는 작용’(upāttikriyā)의 의미를 가지므로, ㉡‘upādāna’를 ㉠와 동일한 ‘취하는 작용’으로 보기보다, ‘취하여지는 대상’(nye bar blang bar bya ba=upādeya)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upādāna’와 동의어로 처리된 ‘karma’는 ‘행하여지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주석인 “...copādeyaupādātroh parasparāpekṣayoḥ karmakāraḥ kavada...”에서 ‘karmakāraḥ kavada’의 해석 역시, 바로 앞의 ‘취하여지는 대상(upādeya)과 취자(upādātr)’와 호응하므로 ‘행위 대상(karma)과 행위자처럼’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론』 계승만이 아닌, 『프라산나파다』의 주석을 중심으로 『중론』 제8장 제12계와 제13계에서 ‘karman’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upādāna’와의 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upādāna’의 의미 고찰

‘upādāna’는 ‘acquiring, clinging’등의 의미로, 한문 문화권에서 흔히 취(取), 집착(執着)등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 명확한 의미는 역시 텍스트의 문맥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중론』을 중심으로 ‘upādāna’의 의미를 면밀히 고찰하고 있는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에 의하면, ‘upādāna’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⁷⁾

7) 高崎直道 「UPĀDĀNA(取)について－『中論』の用例をめぐって－」 『仏教教理の研究：田村芳朗博士還暦記念論集』(東京：春秋社, 1982), pp.40-43.

- (1) 인시설(因施設: 무언가에 의해 어떤 것을 상징하여 거기에 명칭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것)의 의미.
- (2) 자아의 토대 및 근거로서의 오취온을 일컫는 ‘소재’로서의 의미.
- (3) upādāna와 upādātr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용(kriyā), 주체(kāraka, kartr), 작용의 대상(karman)의 3가지 항목이 필요한데 upādāna는 그 중 작용의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원래의 의미에 가깝다.
- (4) upādāna= śārīra(육체)의 의미 (5) 12지 연기에서 bhava(유)를 있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upādāna(취)의 의미.

다카사키는, 이 중 (3)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중론』 제8장 제13계의 주석을 인용하는데, 이때 그는 “karma copādānam”과 “karmakāravād”를 “행위의 대상(karma) 즉, 소재(upādāna)”와 “업(혹은 행위 대상)과 행위자의 경우처럼”⁸⁾이라고 해석하여 ‘karman’을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라고도 보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문장에 대해 혼다 메구무(本多恵)는, “행위인 취하는 것”과 “행위와 행위 주체처럼”으로 해석하고⁹⁾, 오쿠주미 다케시(奥住毅)는 “업(karman), 즉 (취=취하여지는 것: nye bar blang bar bya ba)”과 “흡사 업과 작자가 성립하듯이”로 해석하여¹⁰⁾, ‘karman’을 ‘취하여지는 대상’으로서의 의미와 ‘행위’의 의미로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이, 그 자체로 ‘행위’와 ‘행위 대상’의 의미가 있는 ‘karman’을 『중론』 제8장 제12계와 제13계를 통해서 검토해 보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계송 자체만으로는 ‘karman’이 행위인지 행위 대상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프라산나파다』의 주석에서 ‘upādāna’의 의미와 함께 검토해 보면 ‘행위 대상’

8) 高崎 直道, 앞의 논문, p. 43.

9) 本多 恵 『チャンドラキールティ中論註和訳』(東京: 国書刊行会, 1988), p. 190.

10) 奥住 毅 『中論註釈書の研究(チャンドラキールティ 『プラサンナ파다』 和訳』(東京: 大蔵出版, 1988), p. 319.

11) cf. 2016년 인도철학회 추계 학술 대회 필자 발표 논문(미계제) p. 4 각주 13), 14).

(upādeya, nye bar blang bar bya ba)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현대어 번역은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으로 인해 ‘karman’이 ‘행위’ 뿐 아니라 텍스트 안에서 ‘행위 대상’의 의미 역시 취하고 있다면, 상술한대로 해당 계송을 ‘작용-행위-행위자’의 ‘삼자에 의한 중층적인 상호 의존적 연기 관계’로 보는 이해는 다소간의 재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문점을 염두에 두며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upādāna’와의 관계속에서 ‘karman’의 의미를 또 다른 주석서들을 통해 검토한다.

3. ‘취자-취-취하여지는 대상’의 의미 고찰

찬드라키르티는 『프라산나파다』보다 앞서 저술한 자신의 『입중론주(入中論注)』에서 『입중론』 제6장 제137계를 주석하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론』 제8장 제13계등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upādāna’와의 관계를 통한 ‘karman’의 의미를 더욱 상세히 고찰하기 위하여 『입중론(주)』와, 이에 대한 인도인의 유일한 주석인 자야난다(Jayānanda 11C경)의 『입중론복주』의 관련 부분을 함께 검토해 보면 보다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입중론(주)』에서 가장 방대한 제6장「제6지반야바라밀다장」은 인법이무아(人法二無我)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 제137계는 인무아를 논증하는 계송이다. 찬드라키르티는 이 제137계에서 ‘upādāna-upādātṛ’, ‘karman-karṭṛ’의 관계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취자(upādātṛ) 그 자신으로부터 취(upādāna)등이 동일물이 될 수는 없다.
행위(karman)와 행위자(karṭṛ)가 동일물과 같이 될 것이다. 『입중론』
6-137¹²⁾

12) nopādātus caikatā yuktarūpā svopādānaiḥ
karṭṛkarmaikataivam syāt / MA 6, k.137b.(Li. p. 21)
cf. len po rang nyer len gcig rigs dngos min ||
de ltar na las byed po gcig nyid 'gyur ||MA 6-137ab. (MABh p. 259. l.12, l.14)

이 계송에 대해 찬드라키르티는 인무아를 논하는 취지에 맞춰 “취자는 자아이고, 취(upādāna)는 오온”이라고 주석하므로¹³⁾, ‘취’는 앞의 다카사키 논문이 밝혔듯이 대상, 소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취자와, 대상으로서의 취가 동일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앞의 『프라산나파다』의 주석 및, 『입중론(주)』가 『중론』 제10장 제1계의 불과 장작의 비유등을 인용하면서 보여주듯이 양자는 서로 의존해서(brten nas)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중론(주)』는 이러한 의존관계를 기반으로 『중론』 제8장 제13계의 취의 의미에 대해 『프라산나파다』에는 보이지 않는 주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의미를 『입중론복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와 같이 취(upādāna)를 이해하여야 한다. 『중론』 8-13a

…그것은 [취라고 하는 작용] 자체를 성립시키는 행위자(bye pa po)와 ① 취하여지는 대상인 행위(nye bar blang bar bya ba las)가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② 취라는 단어는 취자(nye bar len pa po)와 취하여지는 대상(nye bar blang bar bya ba)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 취자와 취하여지는 대상은 상호 의존하므로 행위자와 행위처럼 성립하지만, 본질적(ngo bo)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¹⁴⁾ (밑줄 필자)

이 주석은 앞에서 본 『중론』 제8장 제13계에 대한 『프라산나파다』의 주석과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한데, ‘karman’의 의미를 검토하는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자야난다 역시 여기서 행위(las *karman)라는 단어를 ① “취하여지는 대상인 행위”(nye bar blang bar bya ba las) 즉, ‘대상’(upādeya)으로 명확히 보고 있다는 점이다.¹⁵⁾

13) 'dir nye bar len pa po ni bdag yin la | nye bar len pa ni phung po lnga mams yin no ||MABh p. 259, ll. 16-17.

14) de bzhin nyer len shes par bya MK 8-13a.

…de rang gis grub par byed pa po dang nye bar blang bar bya ba las la ltos pa yin no||des na nye bar len pa'i sgra ni nye bar len pa po dang nye bar blang bar bya ba brjod pa yin no || nye bar len pa po dang nye bar blang bar bya ba de dag kyang phan tshun la ltos nas byed pa po dang las ita bur grub pa yin gyi rang gi ngo bo'i sgo nas ni ma yin no|| D. 3870, 254b7-255a2.

또 하나, 이 주석은 취의 의미에 대하여, ②“취(nye bar len pa)라는 단어는 취자(nye bar len pa po)와 취하여지는 대상(nye bar blang bar bya ba)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취하여지는 대상(=행위 대상)’과 ‘취자’라는 것도 모두 ‘취’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 ‘대상’과 ‘취자’가 ‘취’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서로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⁵⁾ 즉, ‘취’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한 작용이나 행위 자체를 성립시켜주는 취자(행위자)를 필요로 하고, 그 대상인 취하여지는 대상(행위 대상)이 본질적이 아닌, 마치 행위자와 행위처럼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성립하기 때문에 ‘취’는 취자와 취하여지는 대상의 의미까지 포함 할 수 있는 말이 된다.

이와 같이, 취하여지는 대상과 취자는 모두 ‘취’라는 단어 자체에서 비롯되지만, 상대에 의존할 때에만 가설적으로 존재하므로, 취를 중심으로 쌍을 이루어 존재해야 할 항목은 ‘취하여지는 대상’과 ‘취자’이다. 이것을 ‘취하여지는 대상=오온’, ‘취자=자아’라는 각주 13)의 『입중론주』의 정의에 따라 이해하면, ①에서 ‘행위(las)’는 ‘취하여지는 대상(오온)’이라고 주석되어졌기 때문에 ‘행위(karman, las)’라는 단어는 오온, 즉 ‘행위(취)의 대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4. upā-√dā 개념을 통한 취와 행위의 의미 고찰

계속해서 『중론』 제8장 제13계를 주석하는 『입중론(주)』 제6장 제137계를 살펴보면, 『프라산나파다』의 주석에는 보이지 않는, ‘upādāna’의 어근 분석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취자↔취↔취하여지는 대상’이 어떻게 순환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입중론(주)』와 『입중론복주』를 중심으로 삼자의 성립 배경과 상호 관계의 양태에 관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15) 각주 5) 『프라산나파다』에서의 “karma copādānam”에 대한 티베트 역 nye bar blang bar bya ba las과 동일함.

16) 각주12) 『입중론』 제6장 제137계 참조.

이것[『중론』제8장 제13계]에 대하여, 동사의 어근 개념 (dngos po, *bhāva : 여기서는 upā-√dā)은, lyuṭ접미사(kṛt접미사 ana)가 붙어서 취(upādāna)라고 한다. 그리고 어근 개념 역시 성립시키는 것 없이 생겨나지 않으므로 [동사 어근 개념] 자체를 성립시키는 취하여지는 대상과 취자를 ①결합시킨다(nye bar 'jog pa, *upa-sthā). ‘취’라는 단어는 “kṛtya와 lyuṭ[의 용법]은 다양하다”(kṛtya lyuṭo bahulam)라고 [Pāṇini, III.3.3.113에서] 설명하므로, 동사의 행위에 lyuṭ접미사(kṛt접미사 ana)가 붙는 것에 의해 ②취하여지는 대상(nye bar blang bar bya ba)인 행위(karman)도 또한 말하여진다. …그와 같이 취하여지는 대상에 의존해서 취자로서 가설되고, 바로 그 취자에 의존해서 취하여지는 대상인 것이다.¹⁷⁾ (밑줄 필자)

이 주석에서 찬드라키르티는 ‘취’라는 동사의 어근 개념을 통해 상호 의존하는 한 쌍의 개념인 취자와 취하여지는 대상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취’의 기본 개념을 가진 동사 어근 upā-√dā은 파니니 문법 규정에 의해 ‘ana’ 접미사를 붙여 ‘취하는 것’의 의미를 가진 ‘upādāna’가 될 수 있다. 그리고 ‘upādāna’ 역시 그러한 행위를 성립시키는 취자와 취하여지는 대상 개념을 필요하므로 ‘취’는 그 양자를 ①결합시킨다. 결과적으로 ‘취자-취-취하여지는 대상’의 삼자가 갖추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upā-√dā가 ‘취하는 것’ 혹은 ‘취하여지는 대상’의 여러 의미를 갖는 ‘upādāna’라는 개념이 될 수 있음은, 먼저, 문법 규정에 의해 지지된다. 그렇게 파생된 ‘취자-취-취하여지는 대상’은 물론 순환적 상호 의존 관계로 성립하는데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취’의 ‘①결합’ 기능이다. 그렇다면,

17) 'dir dngos po luṭ'i rkyen byas nas nye bar len pas na nye bar len pa zhes bya ba yin la[dngos po yang sgrub par byed pa med par 'byung ba ma yin pas|rang gis grub par byed pa nye bar blang ba dang nye bar len pa po nye bar 'jog pa yin na|nye bar len pa'i sgras ni kriṭ dang luṭ ni phal cher ro (Pāṇini, III.3.3.113) zhes bya bas las la luṭ'i rkyen byas nas nye bar blang bar bya ba las kyang brjod pa nyid do || de'i phyir ji litar byed pa po la brten nas las su gdags par bya la |las la brten nas kyang byed pa po yin pa de bzhin du nye bar blang ba la brten nas nye bar len pa por gdags par bya la |nye bar len pa po de nyid la brten nas nye bar blang ba yin no|| D.3862, 300b4-7.

하나의 어근에서 파생된 삼자가 그 각각의 의미를 가지며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주석은 본 논문 각주5)의, 동일한 『중론』 제8장 제13계에 대한 『프라산나파다』의 주석인 “...[취하는 작용은] 그것은 스스로 성립시키는 행위자와 그 취자, 즉 취하여지는 행위의 대상을 결합시킨다.”(“...sā ca svasādhanam kartāram upādātāram, karma copādānam samnidhāpayati.)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중론주』의 ①의 티베트어 역인 “nye bar ’jog pa”(*upa-sthā)는 ‘samnidhāpayati’와 대응하는데, 양자 모두 ‘가까이 두다, 밀접하게 있다’의 의미가 있다.

한편, 『프라산나파다』의 “samnidhāpayati”에 대한 티베트어 역은 “dzin par byed cing”(=grhyate)인데, 이 단어는, 『입중론주』에 선행하여 이미 ‘취’의 어원 분석을 통해 취자와 취하여지는 대상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불호주』 『반야등론』 및 『반야등론복주』에서 그 사용이 확인되고 있다.¹⁸⁾ 따라서 이들 주석서들이 ‘취-취자-취하여지는 대상’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단어는 “nye bar ’jog pa(*upasthā, samnidhā, gzung ba(’dzin pa)” 이므로, 본 논문에서 번역어로 사용한 ‘①결합 시키다’가 내포하는 의미는 취에서 비롯된 취자와 취하여지는 대상이 서로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드러내어지고 있음 (samnidhāpayati: make present or manifest, represent)을 나타낸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밀접한 관계’의 의미는 『입중론복주』에서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설명된다.

18) nyer len zhes bya ba ni dngos por lta ste / gang la dngos po yod pa de la byed pa po du ma yod pas ’dir nye bar blang pa dang nye bar len pa po gzung bar ’dod par bya’o // de ji ltar byed pa po las la brten nas gdags pa de bzhi du / nye bar len pa po yang nye bar blang ba la brten nas gdags so // Saito, Akira. “A study of *The Buddhapālita-mūlamadhyamaka-vṛtti*”,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4) p.130. ll. 4-7. “취(nyer len *upā-√dā)라고 하는 것은 동사 어근 개념이다. 어근 개념이 있는 곳에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므로, 이것에서 취하여지는 대상(nye bar blang pa)과 취자(nye bar len pa po)가 파악되어 적야 한다. 그와 같이 행위자는 행위에 의존해서 가설되고, 취자도 취하여지는 대상에 의존해서 가설된다.”(밑줄 필자)

cf. 『반야등론』 D.3853, 118a2-3, 『반야등론복주』 D. 3859, 170b1-3. Saito, Akira, *op. cit.*, p. 264 n. 29.

“『입중론주』에서] 어근 개념 역시 성립시키는 것 없이 생겨나지 않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취(nye bar len pa)의 작용(bya ba)은, 행위와 행위자 양쪽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취하여지는 대상(nye bar blang bar bya ba)은, 어떤 무엇(누군가)에 의한 그 취(len pa)를 행위자라고 하고, 그 취하여지는 대상을 행위(las)라고 말하여진다.¹⁹⁾(밑줄 필자)

즉, 취라는 작용은, 그 자체가 그 취를 행하는 행위자의 개념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취자(행위자)라는 개념은, 취하여지는 대상에 대하여 그 취라는 작용이 ‘무엇(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 ‘무엇(누군가)’을 ‘행위자’라고 하고, 그 상대를 ‘취하여지는 대상’인 ‘행위’, 즉, ‘행위 대상’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취-취자-취하여지는 대상은 하나의 어근에서 비롯된 매우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대가 서로 존재할 때 그 상대에 의존한 관계 속에서만 드러내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서로 동일하지 않고, 그 각각이 본질적으로 취-취자-취하여지는 대상이라는 이름으로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와 행위자처럼’ 순환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만 성립될 뿐이다.

환언하면, ‘취’라는 것이 ‘무엇(누군가)에 의해’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 그때 그것은 ‘행위자(취자)’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상대는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 단어가 ‘결합 시키다, 밀접하게 두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제8장이 나타내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dnogs po yang sgrub par byed pa med par 'byung ba ma yin pas zhes bya ba ni nye bar len pa'i bya ba ni las dang byed pa po gnyis la ltos pa yin tel'di ltar nye bar blang bar bya ba gang gis len pa de la byed pa po zhes bya la gang nye bar blang bar bya ba de la las zhes brjod par bya'o* || D.3870, 255a7-b1(『이탈릭』『입중론주』, 밑줄, 필자)

5. ‘중층적 상호 의존적 연기 관계’ 검토

이상과 같이 삼자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면 본 논문 각주6)에서 언급한, 『중론』 제8장 제13계에 대한 ‘중층적 관계’는 필자의 이해와 다소 다른 점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중층적 관계’란, 필자의 이해에 따라 도식적으로 표시하면, {(취의)작용↔(행위자↔행위)}처럼, 행위자와 행위의 양자가 상호 의존하고, 그러한 양자의 관계가 다시 ‘작용’에 의존해서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상에서 검토한 『중론』 제8장 제13계에 관한 주석을 보면, 취의 작용이 행위자-행위와 분리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취란 그 자체로 취하여지는 대상(행위 대상)이 되고, 또한 그 대상과 취자(행위자)를 결합 시키듯이, 그 삼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때 주석서들은 ‘취자=행위자’, ‘취하여지는 대상=행위의 대상(karman)’이라는 단어를 병행해서 쓰고 있지, 특별히 ‘취하는 작용’에서 ‘작용’이라는 단어만을 분리해서 행위자-행위에 결합시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취의 작용’이, 적어도 이 주석을 놓고 보면, 행위자-행위와 분리되어 행위자-행위가 상호 의존한 후, 다시 작용과 ‘중층적’으로 의존한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상술하였듯이 취의 작용이 곧 취자이고, 또한 취하여지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물론 그 삼자는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행위자-행위라는 항목은 취의 항목들과 동일한 개념을 가진, 제12계에서 보여진 상호 의존적 존재들의 대표적 항목들일 뿐이므로 주석서들은 취자(=행위자), 취하여지는 대상(=행위 대상)이라고 병행해서 쓴 것으로 보인다. 환언하면, 취의 ‘작용’과 ‘행위자-행위’는 분리되어 작용을 주고 받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추측컨대 ‘중층적 관계’는, 제13계에 대한 『프라산나파다』의 주석에서²⁰⁾ ‘upādāna’에 대한 설명 중, ‘취하는 작용’(upāttikriyā)이라는 단어에서 ‘작용’(kriyā)에 포커스를 둔 후 이 단어만을 떼어와서 ‘행위(대상)- 행위자’와 연결시킨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관계를 {(취의)작용↔(행위↔행위자)}라

20) 본 논문 각주 5)

고 표현하였다면, 필자는 그러한 ‘중층적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의 작용 ↔ 취자(행위자) ↔ 취하여지는 대상(행위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싶다.(일직선으로 표현하였지만, 순환적 관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자크 메의 견해에서도 추론된다.²¹⁾

제13계에서 ‘취자-취’는 ‘행위자-행위’의 특별한 면을 표시한 것이며, 취는 행위와 대상(이 두 용어는 *karman*으로 지명된다)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으로서 행위자이고, 이 행위자는 행위와 대상이 그에게 속한다고 생각한다...(p. 163)

...취에 대해서는 자기 것으로 하는 행동과 취의 대상이다. (p.164)

즉, 취의 작용이라는 것은 ‘행위자-행위’와 분리되어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행위의 상호 의존의 형태가 취 및 경험 세계의 존재 현상, 본질(*bhāva*)에 확대된 것이다.²²⁾ 따라서 행위자-행위의 한 예로서의 취의 작용에서 ‘작용’만을 떼어내서 ‘행위자-행위’와 관련짓고 ‘중층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제8장 제13계의 관련 주석서들에서는 도출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III. 결론

이상, 본 논문에서는 『중론』 제8장 제13계의 ‘*upādāna*’의 의미와 이와 관련하여 ‘*karman*’의 의미를 여러 주석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는 취자-취하여지는 대상을 모두 의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문법 규정에 의해 지지된다. 그리고 그렇게 성립된 그들 각각의 항목은 결코 본질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행위의 관계처럼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21) 자크 메 지음·김형희 옮김 『中觀學研究』(서울: 경서원, 2006) pp.163-164.

22) 자크 메 지음·김형희 옮김, 앞의 책, p. 163.

성립할 뿐이다.

이러한 관계속에서 ‘karman’의 의미를 살펴보면 ‘취하여지는 대상(upādeya)’으로 쓰였기 때문에 단순히 ‘행위’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행위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취는 그저 행위자-행위 대상이 보여주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확장된 한 예시로 보아야 하고, 행위자-행위대상과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중론』 제8장 제13계의 주석을 통하여서는 {(취의)작용↔(행위↔행위자)}라는 ‘중층적 상호 의존적 연기 관계’로 이해하기보다, 취의 작용이 곧 취자(행위자) 및 취의 대상(행위의 대상)으로 ‘밀접한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취의 작용↔취자(행위자)↔취하여지는 대상(행위의 대상)’의 구조로 보는 편이 제8장 제13계의 주석에 대한 이해로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1. 약호 및 참고 자료

- MA(Bh) *Madhyamakāvatāra par Candrakīrti, traduction tibétaine*, publié par Louis de la Vallée Poussin, Bibliotheca Buddhica IX, St. Pétersbourg, 1907-12.
- MMK *Mūlamadhyamakakārikā* see PSP
- Li, Xue zhu. “Madhyamakāvatāra –kārikā Chapter 6”,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2015), 43-1, Springer.
- PSP *Mūlamadhyamakakārikās de Nāgārjuna avec la Prasannapadā Commentaire de Candrakīrti*, publiée par Louis de La Vallée Poussin, Bibliotheca Buddhica IV, St. Pétersbourg, 1903-13.

- 남수영, 『중관 사상의 이해』 (서울 : 여래, 2015)
- 자크 메 지음·김형희 옮김 『中觀學研究』 (서울 : 경서원, 2006)
- Saito, Akira. “A study of The *Buddhapālita-mūlamadhyamaka-vṛtti*”,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4)
- 奥住 毅 『中論註釈書の研究(チャンドラキールティ 『ブラサンナバダー』 和訳)』 (東京 : 大蔵出版, 1988)
- 桂 紹隆, 五島 清隆 『龍樹 『根本中頌』 を読む』 (東京 : 春秋社, 2016)
- 高崎 直道 「UPĀDĀNA(取)について－『中論』の用例をめぐる－」 『仏教教理の研究 : 田村芳朗博士還暦記念論集』 (東京 : 春秋社, 1982)
- 本多 恵 『チャンドラキールティ中論註和訳』 (東京 : 国書刊行会, 1988)

Studies of Interdependence with the Meaning of “Upādāna” and “Karman” - Based on *Mūlamadhyamakakārikā*, Chap. 8, 12~13

Jung, Sang-Kyo
HK Reaserch Professor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The meaning of “pratyayatā” (interdependence) is a very important concept that penetrates the whole *Mūlamadhyamakakārikā* (*MMK*). Particularly, Chapter 8 shows interdependence of Agent (*kāraka*) and Act (*karman*) extending to all beings, and the concrete example of this expansion is Action of “upādāna”. Therefore, a clear analysis of a structure of “Action of upādāna-Agent-Act” could be a useful model to understand “pratyayatā” of the *MMK*.

As is known, however, because the word “karman” means not only Act but also an objec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meaning of “karman” accurately through the verses of the *MMK*.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pratyayatā” in Chap. 8 should be begun with determining the meaning of “karman” through commentaries of the *MMK*.

This determination is important because the relationship of Agent-Act in Chap. 8 extends to “upādāna”, and considering the meaning of the “karman” leads to the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upādāna” which has multiple meanings itself.

In other words, since th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karman” leads to the analysis of “upādāna”, the precedence of this review makes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pratyayatā” more clear.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clearly defined the meaning of “karman”,

and seems to regard “upādāna” as a simple example of expansion. So they do not show a comprehension of both “karman” and “upādāna”.

Therefore, I will consider the meaning of “pratyayatā” through the meaning analysis of “upādāna” and “karman” based on the commentary of Chap. 8 of the *MMK*.

Keywords

pratyayatā, karman, kāraṅka, kartṛ, upādāna, upādeya, upādātṛ

2017년 02월 02일 투고

2017년 03월 01일 심사완료

2017년 03월 11일 게재확정